

**작품 제목****‘나 하나쯤이야’ 안돼~ , 내가 먼저 안전수칙!****1. 내용 기입**

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생활 안전에 관하여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런 안전 교육을 배우더라도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

몇 달 전에 유행했던 당근칼 이라는 장난감이 있는데 이 당근칼 장난감은 진짜 칼과 모양도 비슷하고 접거나 펼 때도 진짜 칼과 비슷해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.

저도 이 당근칼이 재미있기도 하고 유행을 해서인지 당근칼을 모으기도 했습니다.

당근칼 크기는 보통 당근칼 사이즈 보다 두 배 더 큰 사이즈도 있고 반대로 두 배 더 작은 사이즈도 있어서 모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

그런데 어느 날 이 당근칼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학생들이 종종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

학생들은 이 당근칼의 뾰족한 부분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물건을 자를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

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 중에서도 이 당근칼로 칼싸움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떤 친구는 배에 당근 칼을 맞아서 보건실에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.

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칼이지만 실제 칼과 너무 비슷한 모양이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위험한 장난감이었습니다.

그 이후로는 당근칼이 위험하다며 판매하지 말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

저는 이 기사를 보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도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그리고 한 때 저희 학교 5학년 오빠들 사이에서 비비탄총이 유행을

했습니다.

그래서 손에 비비탄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.

이 비비탄총을 가지고 있던 한 오빠가 저와 함께 걷고 있던 친구 쪽으로 실수로 비비탄총을 쏘다가 친구의 귓볼에 맞아서 그 친구의 귓볼은 붓기 시작했습니다.

다행히 빗겨 맞아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비비탄총 역시 장난감이지만 사람을 향해 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이었습니다.

만약에 눈에 비비탄총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.

그 이후 저희 학교에서는 비비탄총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
하지만 학교 밖 길거리에서는 아직도 비비탄총을 가지고 다니며 총싸움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.

정말 큰 사고가 나야 멈출 것인지 걱정이 되었고 이러한 학생들에게 생활안전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.

마지막으로 4년 전 2020년에 제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안동강남초등학교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강당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큰 불이 났었습니다.

유치원 버스를 타고 가던 저는 너무 놀라서 저절로 손이 입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.

기사를 찾아보니 강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접과정에서 부주의로 불을 붙이다 폭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

강당에서 일어난 화재가 옆 건물 본관 쪽으로도 불이 붙어 정말 큰 화재로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.

그래서 학생과 교사 약 70여명이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.

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튜브 영상에 4학년 오빠 두 명이 4층

교실 창문들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.

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무서움과 공포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이렇게 한순간의 작은 부주의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
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 대피 훈련이나 소화기 사용법,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가스 밸브 잘 잠그기 등 일상생활에서 생활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'나 하나쯤이야.'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교육을 잘 받아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겠습니다.